

갈 등

Konflikt

1. 어원

갈등(독일어 Konflikt, 영어 conflict)은 ‘충돌하다’, ‘다투다’, ‘싸우다’의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단어 conflagere, conflictare에서 유래한다. 어원이 시사하듯이 갈등은 개인, 단체 또는 국가나 공동체에서 둘 이상의 상이한 관점(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대치할 때 발생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분쟁이나 불화형태 (전쟁, 권력투쟁, 이념투쟁, 영토분쟁, 파업 등)로 표출된다.

2. <갈등>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

‘갈등’에 대한 연구는 그 주체와 생성원인에 따라 이론적 접근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심리학, 사회학, 문화학 등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갈등의 생성 및 전개·해소과정에 대한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 1) 갈등을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의 표출로 보는 견해. 인간 내면에는 충동, 호전적 성질이 존재하며, 그 결과 갈등을 자연적인, 인류진화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토마스 홉스, 찰스 다윈, 콘라드 로렌츠 등)
- 2) 인간 내부의 대립적인 행동경향, 욕구 등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심리학적 견해 (예: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와 캠핑카를 다 갖고 싶을 때)
- 3)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룹 간에 이해관계, 목표, 가치관, 신념, 규범, 이데올로기, 종교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 (사회심리학적 견해)
- 4) 인간이 사회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갈등을 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보는 견해 (짐멜, 코저, 다렌도르프)
- 5) 갈등의 원인을 사유재산제도와 이로 인한 계급의 형성에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견해

- 6) 개인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적 견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원초적 자아(이드)는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반면 외부의 현실은 욕구를 포기하거나 욕구 충족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대립에서 심리학적 갈등이 생기며,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 7) 갈등을 인간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간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 (예: 동료와의 연대감과 회사경영진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업반장이나, 가정과 직업상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장)

3.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소과정

갈등의 원인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소과정이다. 그 이유는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다르지만 갈등이 피할 수 없는 심리적 · 사회적인 현상이 라면, 개인이나 집단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적절한 해소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전개와 해소과정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 1) 혼란: 갈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 악화되는 경우
- 2) 한쪽 입장 또는 이해관계의 소멸
- 3) 화해와 타협
- 4) 다른 형태로의 갈등 이전

갈등은 그 해소과정에서 역기능뿐 아니라, 순기능도 한다. 갈등은 개인의 성장과정이나 공동생활에 폐해를 주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으며, 집단 내의 결속 강화, 사회적 변혁의 동인 등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즉 갈등의 해소과정은 기존 규범이나 체제의 개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가능케하는 동인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시스템이 근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모티프의 유형

4.1. 갈등 주체에 따른 유형분류

1) 부자간 갈등 (세대 갈등)

부자간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투쟁이다. 세대 간 갈등으로서 이해되기도 하는 이 유형은 아들(신세대)이 독립해 권력을 요구하지만, 아버지(구세대)가 그것을 외

면하거나, 거부할 때 주로 발생한다. 아들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졌던 이상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아버지 역시 아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해 부자지간의 위기가 싹트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는 곧잘 아버지 세대 전체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부자간 갈등은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2) 형제간 갈등

형제간 갈등 역시 고대 신화나 문학에서부터 많이 사용되는 모티프로서, 이 유형의 성립에는 그리스 신화(예: 탄탈로스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나 비극(예: 외디푸스의 저주에 의한 두 아들 간의 갈등), 성경 속 이야기들(예: 카인과 아벨의 갈등)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 이외에도 이복형제들 간의 갈등이나 자매간 갈등, 쌍둥이 형제들 간의 갈등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

3) 집단이나 국가간 갈등

이해관계, 종교, 인종차이 등에 의해 생성된다. 특히 집단이나 국가의 갈등이 영토나 세력 갈등의 양상을 띠는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영토갈등이야말로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이다. 한 쪽이 영토를 차지하면, 다른 쪽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그 만큼의 영토를 잃을 수밖에 없다.

또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는 국제간 갈등으로서 <동·서 갈등>과 <남·북 갈등>이 대두되었다. 전자의 원인이 냉전으로 인한 블록간의 대치에 있다면, 후자의 원인으로는 산업화된 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간의 대립을 들 수 있다.

4) 분열된 자아의 갈등

앞의 3가지 유형과 달리 동일한 개인 내에서도 상이한 정신적 가치, 이상향, 이념 등에 의해 자아(주체)가 분열될 수 있으며, 이 분열된 자아(주체)가 갈등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

5) 개인들 사이의 갈등

개인들 간의 갈등은 주로 이해관계의 상이함에 기인한다. 교사와 학생, 신부(목사)와 신도, 영주와 농민, 원주민과 이주민,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6) 개인과 집단(국가)간의 갈등

개인 사이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 특히 국가 간의 분쟁, 갈등도 문학 속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7) 인간과 인조인간(아바타, 로봇 등)의 갈등

생명공학과 로봇공학, 사이버 공간의 탄생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20세기 후반부터 인간과 복제인간, 인간과 로봇, 인간과 아바타 등의 갈등이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다.

4.2. 갈등의 생성원인에 따른 유형 분류

갈등의 생성원인은 매우 많고,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문학텍스트에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갈등> 모티프를 그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적 갈등

- 양심의 갈등(명령과 양심의 대립)
- 대립하는 욕망간의 갈등
-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갈등
- 기질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한 갈등
- 역할간의 갈등

2) 사랑의 갈등

- 한 여인을 둘러싼 연인(구애자)들 간의 갈등
-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
-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어머니와 딸 간의 갈등
- 편애 (부모나 교사 등)로 인한 갈등

3) 계승이나 상속을 둘러싼 갈등

- 왕권계승을 위한 갈등
- 유산상속으로 인한 갈등
- 가풍의 계승과 새로운 세계관의 갈등

4) 사회적 갈등

- 봉건영주와 농민간의 갈등
-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
- 이데올로기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 계급(계층)간 갈등
- 빈부의 갈등
- 도시와 농촌간 갈등
- 노동자와 사용주간의 갈등
- 구제도와 새로운 제도(세계관)의 대립
- 개발과 환경보호간 갈등
- 노예와 주인간의 갈등

5) 인종 및 종교적 갈등

- 상이한 종교간의 갈등
- 국교가 다른 국가 또는 민족간의 갈등
-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봉하는 종교의 상이함에 기인하는 갈등
- 같은 종교내 상이한 교파간의 갈등
- 국가간 인종 갈등
- 한 국가를 구성하는 복수의 인종간 갈등

5. 서사구조

	내용
원인	명령과 양심의 대립,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의 대립
	이해관계, 대립하는 욕망의 갈등
	기질, 성격차이
	상이한 역할
	한 여인을 둘러싼 갈등
	어머니(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와 아들(딸)의 갈등
	편애 (부모, 교사 ...)
	왕권계승
	유산상속,
	가풍의 계승, 상이한 세계관, 상이한 이데올로기, 구제도와 새로운 제도
	계급, 계층 갈등, 봉건영주와 농민간의 갈등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사용자, 노예와 주인간 갈등
	상이한 종교
	인종간 대립
과정	투쟁, 전쟁
	고뇌, 변민
	죽음 (자살, 타살)
	간계
	부친살해
	아이(자식) 버리기
	근친상간
	도주,
심판, 판결	

결과	갈등 해소, 평화로운 종결, 화해, 타협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심화됨 (죽음, 대를 이어 지속)
	다른 형태로의 갈등 이전
	은둔, 자살,

6.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코카서스의 백묵원 Der kaukasische Kreidekreis』*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 (1898-1956)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48
등장인물	게오르기 아바쉬빌리: 총독 나텔라: 총독 부인 시몬 샤하바: 군인 그루셰 바흐나체: 보조요리사 미헬: 총독의 아들 아즈다: 마을서기

6.1. 내용 요약

이 희곡은 프롤로그와 5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곡의 소유권을 둘러싼 집단농장간의 갈등이 희곡의 틀을 이루며, 그 안에서 백묵원 재판이야기가 극중극의 형태로 진행된다.

1막: 고귀한 아이

총독이 부인과 젓먹이, 시종들을 대동하고 무대에 나타난다. 군인 시몬이 하녀 그루셰를 사랑해 청혼한다. 폭동이 일어나 총독이 살해되고, 총독부인 나텔라는 애지중지하던 총독의 상속인 “고귀한 아이” 미헬을 버려둔 채 시몬의 도움을 받아 도망친다. 그루셰와 시몬은 급히 결혼을 약속하며, 그루셰는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총독의 아이를 데려간다.

2막-3막: 북쪽산맥으로의 도주/ 북쪽 산악지대

반란을 일으킨 새 군주는 현상금을 걸고 아이를 찾는다. 그루셰는 아이를 위해 오빠가

* 이재진(역): 코카서스의 백묵원. 한마당 1993.

살고있는 북쪽지방으로 도주한다. 도피 중 그루쉐는 아이를 양자로 맞아들이며 모든 역경을 이겨낸다. 오빠의 농장에 도착한 그루쉐는 아이를 위해 올케의 냉대를 참고 지낸다. 드디어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시몬이 그녀 앞에 나타난다. 이때 기갑부대 병사들이 나타나 법원의 명령이라면서 아이를 데려가려한다. 그러자 그루쉐는 미헬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저항한다. 그루쉐가 결혼해 아들까지 둔 것으로 오해한 시몬은 그루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파혼을 요구한다. 군인들은 총독의 아들을 수도로 데려간다. 시몬도 이곳을 떠난다.

4막: 판사 이야기

마을의 판사가 교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마을 서기 아츠닥이 엉뚱하게 판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판사 아츠닥은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약자들을 돕는 판결을 내린다. 내란이 끝나고 총독부인이 돌아오며, 미헬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인이 두 명이나 나타나는 사건이 법정에 의뢰된다.

5막: 백목원

총독부인과 그루쉐는 모권확인소송이 열린 법정에 출두한다. 아이의 생모는 자식을 찾으려는 모정보다는 상속권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재판을 구경하던 시몬은 그루쉐의 진심을 알게된다. 그는 자신이 미헬의 아버지라고 증언하면서 그루쉐를 돕는다. 판사 아츠닥은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 백목원 실험을 지시한다. 그는 백목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아이를 가운데에 있게 한 후, 아이를 동그라미에서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아이의 어머니라고 선언한다. 총독부인은 아이가 아파하는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잡아당긴다. 그러나 그루쉐는 망연자실하여 아이를 놓아버린다. 그루쉐는 “나는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 내가 그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야 한단 말입니까? 난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백목원 시험을 거절한다. 그러자 판사는 생모가 아닌 그루쉐가 아이의 엄마라는 선고를 내리고, 상속인이 없어진 총독의 재산은 공익을 위해 도시에 귀속시킨다. 그루쉐와 시몬은 기뻐하며 아이를 데리고 떠난다.

6.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유형: 개인들 (상속권을 중시하는 생모와 모정을 중시하는 기른 엄마)사이의 갈등

서사구조: 반란이 일어나자 총독부인은 아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총독관저의 요리사 그루쉐가 아이를 거두어 키운다. 반란이 진압되고 생모가 찾아와 아들을 데려간다. 생모와 기른 엄마 사이에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재판이 열린다. 판사는 기른 엄마의 손을 들어준다.

원인	이해관계 (상속권을 중시하는 생모와 모정을 중시하는 기른 엄마)
과정	재판, 판결
결과	갈등의 해소 (기른 엄마의 승소)

7. 작품 목록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괴츠 폰 베를리히엔 Goetz von Berlichingen』 (1773)

그릴파르처 Franz Grillparzer: 『합스부르크가의 형제간 불화 Ein Bruderzwist in Habsburg』 (1848)

뒤렌마트 Friedrich Dürrenmatt: 『물리학자 Die Physiker』 (1962)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 『에밀리아 갈로티 Emila Galotti』 (1772)

브레히트 Bertolt Brecht: 『갈릴레이의 생애 Leben des Galilei』 (1938/1939), 『코카서스의 백묵원 Der kaukasische Kreidekreis』 (1948), 『퐁틸라씨와 그의 하인 하티 Herr Puntila und sein Knecht Matti』 (1948)

브론넨 Arnoldt Bronnen: 『부친 살해 Vatermord』 (1920),

쉴러 Friedrich Schiller: 『군도 Die Räuber』 (1781), 『돈 카를로스 Don Carlos』 (1787/1788), 『메시나의 신부 Die Braut von Messina』 (1803)

엘리넥 Elfriede Jelinek: 『피아노 치는 여자 Die Klavierspielerin』 (1983)

클링어 Friedrich Maximilian von Klinger: 『쌍둥이 Die Zwillinge』 (1776)

키프하르트 Heiner Kipphardt: 『오펜하이머사건 In der Sache J. Robert Oppenheimer』 (1964)

하젠클레버 Walter Hasenclever: 『아들 Der Sohn』 (1914)

호흐후트 Rolf Hochhuth: 『신의 대리인 Der Stellvertreter』 (1963)

8. 연계 모티프

간계, 결투/대결, 경쟁, 도주, 방랑, 배신, 복수, 사랑, 살인, 심판, 신탁, 영웅, 용서/화해, 유혹, 전쟁, 죽음/자살, 폭력, 혁명, 형벌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팜므 파탈 + 간계 + 갈등(부자) + 사랑 + 반란 + 죽음 + 자살
스토리	미모의 여인이 꾸며낸 간계에 의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여인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다. 아버지에게 여인을 빼앗긴 아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죽음을 맞는다. 아들이 여인을 차지하나, 모든 것이 여인이 꾸며낸 것을 알게 된 아들 역시 자살한다.